

DAVID TRAGEN

DAVID TRAGEN

David Tragen is a British designer and artist who handcrafts contemporary, sculptural furniture and wall-art which straddle the boundary of Art and Design. His work is made to order and consists of both limited editions and customisable designs to suit his clients' specifications. Clients can also commission completely new, bespoke concepts and play a part in the design process itself. His work is inspired primarily by beauty found in the natural world and ranges from minimalist to more complex sculptural forms.

www.davidtragen.co.uk
david@davidtragen.co.uk

데이비드 트라겐

데이비드 트라겐은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적 조각 가구와 벽화를 수공예로 작업하는 영국의 디자이너이자 예술가이다. 그는 한정판 디자인과 고객에게 맞는 작품을 주문 제작한다. 또한 고객들은 완전히 새로운 맞춤형 콘셉트를 의뢰할 수 있고 디자인 과정 자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미니멀리스트부터 더욱 복잡한 조각 형태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www.davidtragen.co.uk
david@davidtragen.co.uk

1. SIDEWINDER I

This limited edition sculptural coffee table was inspired by the flowing, undulating movement of the sidewinder snake. The piece was designed to draw the eyes in and take them on a journey as the layered forms weave in and out. Each of the 25 layers consists of five pieces of solid timber, all of which have been skillfully jointed together. This design can also be made as a dining table as well as in other sizes and timbers. Sidewinder II features a new end detail with more twist compared with the original version.



1

1. 사이드윈더 I

이 한정판의 조각적인 커피 테이블은 사이드윈더라는 뱀의 유동적이고 굽이치는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품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안과 밖에서 겹겹이 쌓인 형태가 엮임으로써 그들을 여행으로 데려간다. 25개의 층은 각각 다섯 가지 단단한 목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능숙하게 접합되어 있다. 이 디자인은 다른 사이즈와 목재뿐만 아니라 식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이드윈더 II는 원래 버전과 비교하여 더 많이 비틀린 디테일을 특징으로 한다.

2. AGUAVIVA

Aguaviva is the third design in David's Strata Series. It is made up of 31 layers of solid wood which twist and turn to produce this dynamic, sculptural side table. The top 16 layers of this limited edition table capture the sense of movement as the jellyfish (aguaviva in Spanish) propels itself in its marine environment.

2. 아과비바

아과비바는 데이비드의 스트라타 시리즈 중 세 번째 디자인이다. 역동적인 조각의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뒤틀리고 뒤집힌 형태의 단단한 나무 총 3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한정판 테이블의 상위 16개 층은 바다에서 스스로 나아가기 위한 해파리(스페인어로 Aguaviva)의 움직임을 포착한다.



2



3

3. BEATING WINGS

Beating Wings fuses geometry with organic forms and uses multiple layers to create a sense of movement. The idea was inspired by the beating of a dragonfly's wings and the shape comes from breaking down the phases of motion during the wing cycle, as if through stop frame photography. Just under one hundred pieces of solid timber are carefully jointed together to create this limited edition piece which conjures up different images with every angle it's viewed from.

3. 비팅 윙스

비팅 윙스(날개 울음)는 기하학을 유기적인 형태와 융합시키고 동적 감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층을 사용한다. 이 아이디어는 잠자리의 날갯짓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 모양은 마치 정지 프레임 사진을 통한 것처럼 날개의 움직임 주기 동안 움직임의 단계를 분절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모든 각도에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한정판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100개 미만의 단단한 목재들을 신중하게 접합했다.

4. GENIE

If you're looking to conjure up something special for displaying a favourite ornament, Genie will be more than happy to grant you your wish. As if from nowhere, a smoke-like wisp appears and transforms itself into an elegant, slender shelf. This skillfully hand carved piece can be seen as functional art when used as a floating shelf or displayed in its purest form as a sculpture.



4

4. 제니

만약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식품을 전시하기 위해 특별한 것을 떠올리고 싶다면, 제니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마치 어디서 온 것처럼 연기 같은 조각이 나타나 우아하고 가느다란 선반으로 변신한다. 이 숨겨진 조각품은 떠다니는 선반으로 사용되거나 전시될 때 기능적인 예술이 된다.

5. CORONA

Inspired by the 2015 solar eclipse, Corona is designed to be used alongside other gentle ambient lighting to provide a calming mood to a room. The sunburst effect is created with 16 leaves of Wenge which have been bleached and then hundreds of tiny brush strokes of colour added, so that the brightness gently fades into the dark void. The central, subtly-domed piece in ebonised Oak, acts as a focal point for the eye.

5. 코로나

2015년의 개기일식에 영감을 받은 코로나는 실내에 차분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부드러운 주변 조명과 함께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선버스트 효과는 표백된 웬지의 16개 잎과 수백 개의 작은 붓놀림을 더하여 만들어졌고 밝음이 어두운 공간으로 부드럽게 사라진다. 흑단색으로 착색된 오크의 중심에서 살짝 볼록하게 장식된 조각은 눈의 초점 역할을 한다.



5

6. VITULUS

The elegant, balletic movement of a seal (vitulus in Latin) darting through the waves, was the initial spark for this sculptural floating shelf. It marries functionality with aesthetics in even amounts and captures both the playful agility of the seal with a colourful reference to its marine environment. Vitulus is pictured here in Maple with turquoise painted sections.



6

6. 비틀루스

바다표범(라틴어로 Vitulus)이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우아한 발레 같은 움직임은, 떠 있는 조각적 선반의 최초의 불씨였다. 그것은 기능성과 균등하게 결합하고 바다표범의 바다에서의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장난기 어린 민첩성을 포착한다. 비틀루스는 청록색으로 칠한 단풍나무로 묘사된다.